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rvice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the Arlington Public Library, Texas

최연미(Yeon-mi Choi)*

목 차

- | | |
|---------------------------|-------------------------|
| 1. 서론 | 4.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 |
| 1. 1 연구의 목적 | 4. 1 한국 자료의 수집 |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2 한국 자료의 정리 |
| 1. 3 용어의 정의 | 4. 3 한국 자료의 종류 |
| 2. 미국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 현황 | 4. 4 한국 자료의 이용 |
| 3. 텍사스주 알링턴 공공도서관 개관 | 4. 5 한국 자료의 관리 |
| | 5. 결론 |

초 록

세계의 글로벌화는 공공도서관계에도 그 영향이 지대하여, 현재 미국 공공도서관에는 자국어뿐 아니라 전세계 각종의 다국어 자료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내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텍사스주 알링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 자료에 대한 수집, 정리, 종류, 이용, 관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가 미국내 기타 지역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한국내 공공도서관의 다언어 자료 서비스에 대한 기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study of the Arlington Public Library and present situations of public libraries provid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on aspects of the Arlington Public Library, Texas: collecting, classifying, possessing, circulating, and managing the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addition, this research includes the description of the current trends of Korean language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round the US with literature review methods. This research would be a useful steppingstone when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begin services with Korean language materials, or when public libraries in Korea begin to provide foreign language services.

키워드: 한국 자료, 다언어 자료 서비스, 미국 공공도서관

Korean Language Materials, Foreign language Services, American Public Library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 현 텍사스주립대학교 알링턴, 교육학과 석사과정(solmeui@yahoo.co.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3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어떤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느냐는 문제는 그 사람의 정신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언어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도구이자 교육의 기본요소이며, 전체 인류에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가, 문자로 표현된 물리적 형태가 책이고, 그 책이 소장되어 있는 장소가 도서관인데, 이러한 도서관의 장서들이 자국의 언어뿐 아니라 전세계 각종의 다언어로 채워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 공공도서관의 변화되가는 모습이다.

Banks & Banks(1989)는 다양한 언어, 인종, 문화에 대한 이해인 멀티 컬처럴리즘(multiculturalism)의 연구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보다 통시적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로 조국이나 민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으며, 태어난 곳을 떠나 타국에 사는 사람들, 한 집안에 사는 부모와는 다른 언어를 제 1언어로 구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볼때,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리는 미국은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 문자, 인종, 문화의 다양성에서 그 숫자를 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다양성을 지닌 국민들을 위해 1960년대 이래로 다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관계도 다르지 않아서 영어

가 아닌 다른 여러가지 외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이용자들을 위해 다언어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언어자료 서비스 중에서 한국 자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수도 나날이 증가일로에 있다.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2의 조국으로 결정하고 세대를 이어 이민생활을 하는 이민자들, 유학이나 사업진행을 목적으로 짧게는 3년여에서 10년여 정도 체류하는 그룹들과 연구원이나 방문자로 6개월여에서 3년여 정도 체류하는 단기체류 그룹들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 이민자들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들은 오락적 독서의 목적으로 한국 자료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로는 자녀들에게 제시할 한국 문화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 자료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내 기타 지역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폭넓은 한국 자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 공공도서관내의 다언어 자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기초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가 타 지역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차후에 여타의 공공도서관이 한국 자료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도 관내의 외국인 체류자나 외국 자료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이것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진일보한 서비스 정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미국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였고, 각 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 현황을 인터넷 검색과 문헌으로 조사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내에서 한국 이민자 사회가 가장 큰 공중 하나인 텍사스주에서 한국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링턴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여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알링턴 공공도서관은 현재 44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는 텍사스주에서도 가장 활발한 다언어 자료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중 하나이다. 본 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사서 Patrick Reilly와 이메일 교환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한국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관한 내용은 다언어 자료 봉사를 하는 사서인 Mary Harris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구성을 살피기 위해서, 한글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도서관 목록과 대조하면서 이용대상별, 주제별로 자료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한국 자료 이용과 관련해서는 알링턴 공공도서관 대출통계를 참조하였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한국 자료 이용자를 인터뷰하였으며, 잠재적 이용자를 고려하여 알링턴 거주 한국인들과 전화와 대면의 방법으로 인터뷰하였다. 한국 자료의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며,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집,

정리, 종류, 이용,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1.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 자료 서비스”는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다언어 자료 서비스”라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영어로 “Multi-language services”, “Multi-lingual services”, “Multi-cultural services”, “International language services”, “Foreign language services”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 자료 서비스”의 관점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미국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 또는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오락적 독서나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서비스로 한정한다. 따라서, 연구자를 위한 전공학문과 관련한 학술적인 경향을 지니는 대학도서관이나 특수기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 자료”라 함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언어 자료 서비스 중에서 “KOREAN” 자료라 명시된 한글로 쓰여졌거나, 한글과 영어 2개 언어로 기술된 책, 그리고 출판사가 한국은 아니지만 한글사용 독자를 염두에 둔 자료를 뜻한다.

2. 미국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 현황

2003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12%가량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뉴저지, 일리노이 그리고 텍사스, 6개주의 인구 3분의 2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Larsen, 2004). 이들의 원국적은 순위 1위에 멕시코, 중국, 필리핀, 인도, 쿠바, 엘 살바도르, 베트남, 한국, 러시아, 캐나다로, 한국은 8위를 차지하고 있다(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analysis of March 2004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4).

높은 이민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나 방문 목적이 상당부분 자녀교육과 관련하는 바,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한국인들의 미국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자연히 타언어 이용자들 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이민자나 제2외국어 사용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용자층을 그룹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ALA 자료를 통해 보면, 흥미위주의 이용자, 성인 독자, 경영인, 시민 그룹, 지역 부서들, 학교도서관의 교사들과 학생들, 노인층, 제2외국어 사용자 또는 이민자들, 장애인, 기관의 이용자들 - 노인봉양기관, 탁아, 고아원 그리고 교도소 등의 이용자들, 평생교육자 그룹이다. 이렇게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제2외국어 사용자와 이민자들을 도서관 이용자 그룹의 하나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미국의 많은 공공도서관이 한국어를 포함한 다언어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그 지역의 한국인 거주자 수와 관련하고 있어서 한국인 거주자가 많은 로스 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달라스 공공도서관 등에서 한국 자료

에 대한 활발한 서비스 제공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로스 엔젤레스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고 질높은 한국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ALA(The Korean American Librarians Association)의 자료에 따르면, 로스 엔젤레스 인근의 약 35개 공공도서관에는 110,885 여권의 한국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로스 엔젤레스 공공도서관 부속인 가테나 메임 디어 메모리얼 도서관(Gardena Mayme Dear Memorial Library), 피오 피코 코리아타운 브랜치(Pio Pico Koreatown Branch), 미드 밸리 지역 도서관(Mid-Valley Regional Library)과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그로브 지역 도서관(Garden Grove Regional Library), 로우랜드 하이츠 공공도서관(Rowland Heights Public Library), 글렌데일 센트럴 도서관(Glendale Central Library)은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직원도 배치되어 있다.

뉴욕의 Queens는 100여개 언어 사용자들이 사는 미국에서도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도시중 하나로, 이 도시의 에름허르츠 브랜치(Elmhurst Branch)는 거주자의 82%가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사용한다. 이들의 사용 언어는 스페인어, 중국어에 이어 한국어가 세번째 중요 언어이다. 이 지역의 퀸즈 보로우 공공도서관(Queens Borough Public Library)에서는 1977년 New Americans Program(NAP)를 제정하고 이민자들의 미국 생활 정착을 위한 도움을 시작하였고, 65개 언어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이 도서

관의 장서중 스페인어는 101,000여권, 중국어는 93,000권이며, 한국 자료는 “Hannara(한나라)” 컬렉션이라 칭하며 14개 부속도서관에 총 24,000여권 소장되어 있다(Strong, 1998). 2000년에는 이 지역에서 문구상을 경영하는 한국인으로부터 아동도서 1,000권을 기증받아 한국 자료의 수집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Martin, 2000).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외국어 센터는 콤버랜드(Cumberland) 지역 공공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1976년 외국어 자료 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다 이용의 스페인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7번째로 많이 소장하고 있다(Johnson, 1997). 이들 언어를 비롯하여 약 130여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국 자료는 약 4,000여권 가량이다.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도서관(Pierce County Library)에서는 3,000 여종의 한국 자료를 서비스함은 물론, 인근의 University Place Library의 “한국 문화유산의 날” 이벤트를 후원하고 한국인 이용자의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위 지역 이외에도 시카고의 해롤드 워싱턴 도서관 센터(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일리노이의 스키키 도서관(Skokie Library), 메릴랜드주의 발티모어 카운티 공공도서관(Baltimore County Public Library), 미시간의 캔튼 공공도서관(Canton Public Library), 뉴저지주의 뉴알크 공공도서관(Newark Public Library), 텍사스주의 달라스 공공도서관(Dallas Public Library) 등 많은 도서관에서 한국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내 공공도서관의 한

국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수와 그 장서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 텍사스주 알링턴 공공도서관 개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알링턴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알링턴시는, 미국 텍사스주 Dallas 와 Fort Worth 두 대도시권 사이에 위치한 인구 358,215 여명이 거주하는 텍사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이다. 알링턴 공공도서관은 1923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George W. Hawkes Central Library 를 거점으로 알링턴 동쪽,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그리고 서쪽 지점 총 6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알링턴시 도서관 예산은 2005년 총 \$5,926,482이며, 미디어 자료를 포함한 자료수는 총 515,113, 직원 24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6개소를 포괄한 2004년 연간 이용자수는 1,152,696명이며, 연간 대출수는 1,574,926건에 이른다.

알링턴시 공공도서관의 사명은 다음과 같으며,

다양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기를 증강시켜주면서, 사상, 정보 그리고 상상의 세계를 위한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 사명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이용자 서비스, 모든 연령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지역사회 다양성 고려, 도서관 자료를 지역사회로 유입시키기 등과 같은 사항에 가치를 두고 있다.

현재 알링턴 공공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는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

남어 등의 아시아어와 아라비아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이집트어 등 세계 각지의 언어 44개어에 대한 24,122권의 장서를 가지고 다언어 자료 봉사를 제공한다. 다언어 자료 구입을 위한 2005년도 예산은 약 \$70,000로 전체 도서관 예산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화 행사로 매달 약 15회의 컴퓨터 무료강좌와 스토리 텔링, 각 국경일에 따른 문화행사, 시즌별 문화행사와 가족 위주의 레크레이션, 틴에이저를 위한 문화행사도 매주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영어 다음으로 이용자가 많은 스페인어 사용자를 위해서 스페인어 컴퓨터 교실과 스페인어 스토리 텔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4.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

알링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에 따라 다언어 자료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 자료가 서비스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다언어 자료 서비스 실시 목적은 각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원어민들의 오락적 독서에 대한 봉사에 있으며, 그 외 외국 여행을 위한 준비자료 비치, 해당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사전류와 문법책 제공, 그들의 언어기술 습득에 도움이 될 만한 소설류의 구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알링턴 공공도서관에는 한국자료가 성인용 도서 200권과 아동용 도서 208권으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다.

4. 1 한국 자료의 수집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구입 예산은 2005년의 경우 \$3,400정도로 전체 다언어 자료 구입비 \$70,000의 약 5%에 해당하며, 특별 기금이나 지원없이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다. 한국 자료에 대한 금액의 책정은 알링턴시 한국인 거주인수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다.

구입에 있어서는 도서관 자체내 장서개발 정책에 따라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아시아 자료로 묶여 일년에 1번 주문되는데, 성인용 도서 25권, 아동용 도서 25권, 총 50권을 자체 거래처인 OCLC를 통해 구입한다. 본 도서관에서 한국 자료 구입을 위해 OCLC와 거래하는 이유는 OCLC에서 목록의 편이를 위해 자료의 서지사항을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내 기타 한국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와 같은 구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자료의 기증과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후에 한국 자료 기증과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목록을 위시한 정리 작업을 위해 한국인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 한국 자료의 정리

알링턴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국 자료 서비스를 하는 미국내 여타의 공공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검색 프로그램상에 한국어 키보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한국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서관 목록에 한국 자료의

서지사항은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원하는 자료로의 1차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Kkum ul mongnun yojong”은 한국어 서명 [꿈을 먹는 요정]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목록 기입법은 미국내 한국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어 사용 이용자들의 자료 검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목록에서는 “collection”이라는 항목 아래 “Adult International Languages”와 “Juvenile International Languages”로 한국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 자료들의 Call number는 “Korean”이라고 시작되는 단어아래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누어 DDC 와 소설류로 분류되어 있다.

배열의 방법에 있어서 성인용 한국 자료는 본 도서관 1층의 다언어 자료 서가에 중국어와 일본어 자료 서가 사이에 비치되어 있다. 성인 도서의 경우 DDC 분류순으로 배열하였고, 그 뒤에 소설류를 저자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예를 들어, 김정현의 [아버지]는 “KOREAN FICTION Kim”의 번호를 가지며, 900번대의 주제별 분류 뒤에 소설류 저자 가나다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적 성씨인 김(Kim)을 가진 저자의 수가 많음으로 해서 특정한 저서를 찾는데 혼란을 겪게 된다.

아동도서의 경우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Juvenile, Easy, Baby로 삼분화되어 도서관 1층 아동열람실 안의 다언어 자료 서가에 배치되어 있는데, Juvenile 아래 십진분류와 소설류로 나누어져 있고, Easy나 Baby는 주제 분류없이 저자 기호만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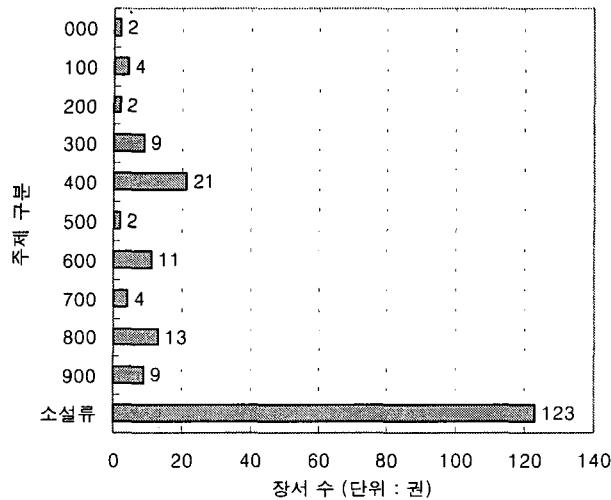
정채봉의 [콩형제 이야기]는 “J KOREAN EASY Chong”으로 표기되어 있다. Easy로 분류된 책들은 포켓모양으로 생긴 아이들 허리 정도의 낮은 서가에 꽂혀있어서, 어린이들이 직접 Browsing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aby 도서도 Easy 도서와 같이 바닥에 위치한 낮은 서가에 꽂혀있어서, 어린이들이 직접 책을 찾기 쉽도록 배치하였다.

4. 3 한국 자료의 종류

알링턴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한국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누는 다음, 주제별 도서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05년 3월 현재는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가 성인용 도서 200권, 아동용 도서 208권으로 총 408권 소장되어 있다.

성인용은 다시 십진의 주제 분류와 소설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주제 분류와 소설류에 따른 자료 수는 다음 <도표 1>과 같다.

다음의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도서의 전체 200권 중 소설류가 절반의 수를 넘는 123권을 차지하고 있음은,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를 비롯한 다언어 자료 서비스의 목적이 이용자의 오락적 독서에 그 비중을 두고 있음의 결과이다. 성인도서의 특징 중 하나는 [신춘문예 1997], [전야 혹은 시대의 마지막 밤 - 1998년 제 2회 21세기 문학상 수상 작품집], [2000 올해의 문제소설], [99 올해의 좋은 소설], [99 최고 작가 단편선], [이문열 문학상 수상 작품집] 등과 같이 책 한 권으로 여러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책



〈도표 1〉 알링턴 공공도서관 성인도서의 종류 (총 200권)

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책들의 비치는 수상작품을 다룬 도서를 수집함으로써 도서 선택시 “저자의 권위”에 대한 실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정방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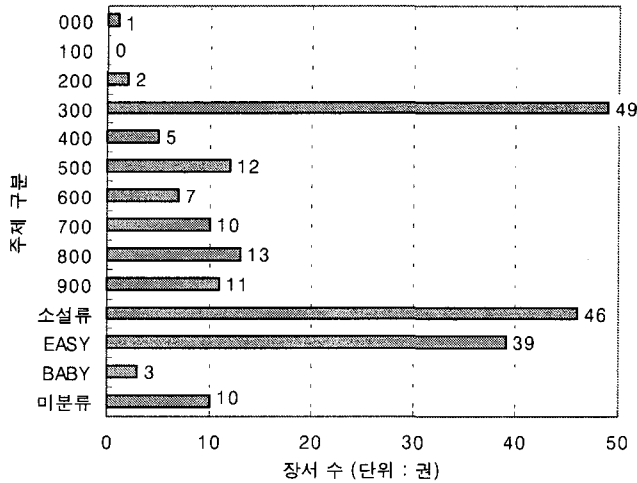
또 다른 중점도서류는 듀이십진분류법의 400번대인 언어류로, 이것은 본 도서관의 다언어 자료 서비스의 목적이 영어를 익히게 하기 위한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서로는 사전류와 [꼭 알아야 할 English Rules 250], [간단한 영어표현 5000], [이런 동작 저런 행동 영어론 어떻게 말하지?] 와 같은 일상 생활영어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용 한국 자료의 경우에는 Juvenile안에서 십진의 주제 분류와 소설류, Easy 그리고 Baby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도서의 수는 다음 〈도표 2〉와 같다.

다음의 〈도표 2〉를 통해 보면, 아동도서의 경우 300번대의 사회과학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그 이유는 398.2의 민화, 우화 분야의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서로는 [우리 아이 호기심을 키워주는 동화], [도깨비 방망이], [해님 달님], [소가 된 게으름뱅이] 등이 있다.

아동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을 빛낸 우리 문화 Best 10]이나 [지혜가 하나씩 30가지 퍼 이야기], [15명의 세계 위인여행] 등과 같이 한 권에 여러가지 내용을 압축적으로 소개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책들은 한 권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짧은 시간내에 그 분야를 접하고자 하는 입문서나 소개서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 특히나 한국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외국 거주 어린이들로서는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 권에 집약해 놓은 위와 같은 책들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찾고자 하는 지적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내 공공



〈도표 2〉 알링턴 공공도서관 아동도서의 종류 (총 208권)

도서관의 한국 자료 비치에 장점이 된다.

아동도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이중언어의 기재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서로는 Hollym 출판사의 아동들을 위한 한국 전래동화 시리즈 10권과 ALA Notable Book, American Bestseller Pick of the Lists, School Library Journal Best Book으로 선정된 Henry Holt and Company의 [구사일생한 토끼, 영어 서명 The Rabbit's Escape]이다. 이렇게 두 언어가 한권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한국어에 익숙하면서 영어를 익혀가는 어린이,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익숙한 어린이, 영어에 익숙하면서 한국어를 익혀가는 어린이 등 다양한 언어 사용층에 도움이 된다. 이 책의 경우 두 언어의 접근성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래동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외국 거주 어린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습득케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유소영(2003)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전래동화의 경우 흥미와 재미를 주며, 말의 의미보다도 소리와 박자(리듬)를 즐길 수 있는 전래동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전래동화의 용도는 전래물 또는 전래되는 무형의 문화를 포함하는 민속과 결부되어 수많은 도구들, 한 민족의 공동재산이 되는 문화로서의 예술에 그 소재로 응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외국에서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래동화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림 및 사진에 있어서도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Hollym 출판사의 [선녀와 나무꾼, 영어서명 The Woodcutter and the Heavenly Maiden] 같은 책을 접하고, 선녀가 입은 의상을 통해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나무꾼의 모

습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대교출판사의 [어린이를 위해 쉽게 풀어쓴 우리풍속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풍속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사진으로 얻을 수 있다.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한 정보습득이 책의 내용 이해를 돕는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 도서를 주관하는 출판계에서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사진 및 삽화의 선정에 좀 더 많은 비중을 기울이고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출판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900번대의 역사 인물에서는, [15명의 세계 위인여행], [아인슈타인]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세계 위인들을 위한 도서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위인에 대한 도서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동도서의 또다른 특징은, 여러 기관을 통해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민서관의 [달을 만지고 싶은 임금님]은 2001년 중앙일보 좋은 책 100선에 선정된 도서이며, 조대현 저작의 [막내 도토리 세상 배우기]는 제 3회 어린이 문화대상 수상도서,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어린이 도서연구회 권장도서로 선정된 도서이다. 또한 이상배 저작의 [도깨비 삼시랑]은 조선일보, 소년조선 선정 좋은책이며, 국민서관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은 중앙일보가 선정한 2000 좋은책 100선, 조선일보 소년조선 선정 좋은책의 선정도서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신문사나 관련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이 외국에서의 한국 자료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4. 4 한국 자료의 이용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말까지 대출 기록에 의하면, 한국 자료 대출은 총 43회로, 1달에 약 10회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대출 횟수만을 조사한 것으로 한 사람이 몇 권을 대출했느냐에 따라 전체 이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당 10권, 3주의 대출기간 규정에 의거할때, 한 달에 적어도 대략 50~60권에 해당하는 한국도서들이 대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당 도서관에 한국 자료 배치 후 지금까지 대출은 총 975회 이루어졌다.

이용자층은 다양하여, 인근 대학인 알링턴, 텍사스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에 재학중인 한국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방문 연구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경우가 300여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외에 상사 주재원 가족, 이민자 가족들이 알링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 자료 이용자에 대한 전화와 대면 인터뷰 실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주일에 1번 또는 10일에 한번 정도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녀를 위한 아동용 도서와 자신의 오락적 독서를 위한 성인도서 소설류에 대한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검색시 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었으며, 이들이 느끼는 알링턴 공공도서관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더 많은 양의 최신의 한국 자료가 비치되었으면 하는 장서량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쇄자료의 비중에서 벗어나 비디오나 음악CD같은 멀티미디어 비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어

며니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이중 언어를 포함하는 동화책의 구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 한국어 검색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와 현재 알링턴 공공도서관에서 스페인어로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강좌, 스페인어 스토리타임과 같이 한국어로 실시되는 컴퓨터 강좌나 다양한 한국 관련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표시하였다.

4. 5 한국 자료의 관리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목록 검색대에 “이 도서관에는 한국어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한국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라는 싸인이 놓여져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한국어 키보드가 지원되지 않고, 목록에서 각 자료의 서지사항이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지사항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 자료를 포함한 다언어 자료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서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중년층의 백인여성으로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하고, 업무상 힌두어와 몇가지 외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 서비스가 44개 언어나 되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사서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 자료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서지사항이 한국인 이용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 도서관이 대상 언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두지 못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각 도서관 다언어 자료 서비스 부서에서는 자료의 제공뿐 아니라 각 언어 사용자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각 언어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도서관 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언어 자료 서비스를 위한 재훈련이나 같은 영역의 전문 사서들과의 교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으나, 스페인어 자료 수집과 관련한 워크숍은 1년에 2-3회 참석한다고 한다. 또한 텍사스주 공공도서관 협회에서는 다언어 자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유용한 관련 웹사이트와 협의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때때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 사서의 재훈련 과정에서의 정보습득과 다른 사서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기존 연구를 살펴볼때, 다언어 자료 서비스 사서들의 적극적인 재훈련과 한국 자료 서비스 제공 사서들의 커뮤니티 구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서들은 그들의 사서교육 당시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내의 교육자를 양성하는 각 대학에서는 미래의 교사들에게 멀티 컬처럴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서 교육에서도 앞으로 다문화 개념에 대한 교육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이외의 또다른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어 및 기타 언어 사용자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점과 비교해볼때, 한국 자료를 포함한

다언어 자료 서비스 업무를 보조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는 없었다. 차후에 한국인 자원봉사 기회가 제공된다면, 한국인 이용자를 위한 발언의 기회와 한국 자료 봉사에 대한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우리는 요즘 “지구는 하나”라는 구호가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외국어로 된 자료들을 만나곤 한다. 특히나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한국 자료는 물론 전세계 각국의 언어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글로벌화가 도서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언어 자료 서비스 중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타 지역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향후 한국내 공공도서관의 다언어 자료 서비스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미국 공공도서관내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문헌조사하였고, 한국 자료를 포함한 44개의 다국어 자료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텍사스주 알링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 자료 서비스의 수집, 정리, 종류, 이용 그리고 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알링턴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에 따라 1996년 한국 자료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2005년 다국어 자료 예산 책정비 \$70,000의 약 5%

에 해당하는 \$3,400 가량을 한국 자료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매년 약 50여권의 한국 자료를 OCLC를 통해 구입한다. 한국 자료 정리를 위해 다언어 자료 컬렉션 아래 한국 자료 성인과 아동용으로 나누어, DDC 분류와 소설류로 나누어 서비스하고 있다. 장서는 2005년 3월 현재 성인도서 200권과 아동도서 208권으로 총 408권이며, 성인용 소설류가 123권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 도서관의 다언어 자료 서비스의 목적이 각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오락적 독서자료 제공에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도서관 소장 성인도서의 특징은 책 한 권에 여러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인된 수상작품을 다룬 도서를 수집함으로써 도서 선택시 “저자의 권위”에 대한 실패를 줄일 수 있음이 외국 자료 선정시에 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도서의 특징으로 398.2의 민화, 우화 분야의 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로 기재된 도서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각 기관을 통해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어서, 국내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이 외국에서의 한국 자료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는 알링턴 거주 한국인들로 일주일에 1번 또는 열흘에 1번 정도 도서관을 방문하며, 자녀를 위한 아동도서와 자신의 오락적 독서를 위한 성인도서 소설류를 주로 이용하였다. 향후 더 많은 양의 최신 한국 자료의 비치에 대한 내용을 건의하였으며 다양한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였다. 자료의 관리는 한국어를 비롯한 44개

언어 자료를 1명의 미국인 다언어 담당 사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활약한다면 한국인 이용자를 위한 발언의 기회와 한국 자료에 대한 보다 폭넓은 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도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을 비롯한 각지에서 온 외국인 이용자가 다수 포함될 것이며, 각종의 외국어 사용이 익숙하여 다언어 자료를 필요로 하는 한국인 이용자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다언어 자료 서비스에 대한 제고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그 발

전 과정을 되새겨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거주 의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는 물론이려니와,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한 공공도서관내 다언어 자료 봉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

끝으로 본 연구가 미국이나 기타 지역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사용 이용자를 위한 한국 자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 방편이 되고, 한국 공공도서관의 다언어 자료 서비스 정신을 촉진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유소영. 2003. 우리나라 전래동화연구의 서지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257-268.
- ALA. 1997. "Guidelines for liaison work in building collections and services." [cited 2005. 3. 20].
<http://www.ala.org/ala/rusa/rusaourassoc/rusasections/codes/code_ssection/codescomm/liaisonwithusers/codeguidefinal.doc>
- Balderrama, Sandra Rios. 2000. "This trend called diversity." *Library Trends*, 49(1): 194-215.
- Banks, J. A., & C. A. McGee Banks. 1989.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Boston: Allyn and Bacon.
- Canton Public Library. 2005. "International language collection survey." [cited 2005. 3. 18].
<<http://cantonpl.org/ilcs.html>>
-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2004.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analysis of March 2004, current population survey." Quoted in Steven A. Camarota. *Background: Economy slowed, but immigration didn't*. 2004(Novemeber). [cited 2005. 1. 20].
<<http://www.cis.org/articles/2004>>

- /back1204.pdf.>
- Chicago Public Library. 2005. "Asian languages collections and special features." [cited 2005. 3. 18].
<http://www.chipublib.org/003cpl/asian_heritage/committee/collection.html>
- Dorman, David. 2001. "Taking library services around the world." *American Libraries*, 32(10): 70-72.
- IFLA. 2004.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 1998*". [cited 2004. 12. 20].
<<http://www.ifla.org/VII/s32/pub/guide-e.htm> >
- Johnson, Debra Wilcox. 1997. "An evaluation of the North Carolina foreign language Center. Johnson & Johnson Consulting: North Carolina. [cited 2005. 3. 20].
<<http://statelibrary.dcr.state.nc.us/lsta/flreport.htm>>
- KALIPA(Korean American Librarians & Information Professionals Association). 2001. "Directory of Korean language collection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cited 2005. 3. 18].
<<http://kalipa.apanet.org/kacollections.html>>
- Larsen, Lukd J. 2004. "The foreign-bor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3." U.S. Census Bureau. [cited 2005. 1. 20].
<<http://www.census.gov/prod/2004pubs/p20-551.pdf>>
- Libraries, City of Arlington, Texas. [cited 2005. 2. 7].
<www.ci.arlington.tx.us/libraries>
- Martin, Matthew. 2000. "Queens library gets donation of Korean children's books." *Queens Chronicle*, 18, May. [cited 2005. 3. 20].
<<http://www.emorningglory.com/Donation%20article.htm>>
- Newark Public Library. 2005.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05. 3. 18].
<<http://www.npl.org/Pages/AboutLibrary/Collectionsdevpol.html>>
- Novotny, Eric. 2003. "Library services to immigrant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2(4): 342-353.
- Pierce County Library. 2005. "News release, learn, enjoy and celebrate at Korean heritage day." [cited 2005. 3. 18].
<http://www.pcl.lib.wa.us/newsrel/Korean_h_day_NR.pdf>
- Skokie Public Library. 2005. Special Collections. [cited 2005. 3. 18].
<http://resources.skokie.lib.il.us/s_read/rd_special/>
- Strong, Gary E. 1998. "Non-traditional approaches to serving new Americans." 64th IFLA Conference. [IF-

LANET]. [cited 2005. 2. 23].
<<http://ifla.org/IV/ifla64/171-155e.htm>>

University of Michigan & University of Washington. 2002. "Queens Borough public library new Americans(NAP)

and adult learner programs case study report." [cited 2005. 3. 20].
<<http://www.si.unich.edu/~durranice/casestudies/casestudyreports/QueensReport>>